

함께 하는 이야기- 세대차이 이해하기 [스마트폰]

어쩌면 현재 부모인 분들은 모두 <서치> 속의 아버지이지 않을까요? 여기저기서 ‘요즘 애들’에 대해 말하지만, 어른들은 그들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. 태어날 때부터 ‘디지털 원주민’으로 성장한 이들은 이전 세대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? 만약 그들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? 한 기사를 통하여 자녀들 세대의 스마트폰 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.

초등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“잼페이스”는 화장 취향을 분석해 미용 유튜브와 매칭해준다. “채티”는 10대가 많이 이용하는 소셜 창작 앱인데, 채팅 형식으로 쓰인 소설 작품을 읽을 수 있다. “프립”은 ‘소셜 액티비티’ 플랫폼이다. 이런 플랫폼의 특징은 ‘관계의 느슨함’이다. 호스트와 게스트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미련 없이 헤어진다.

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민감하다. “스냅챗”은 친구의 위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면 자동으로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생활에 민감한 이들이 많이 사용한다. “디스코드”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인데, 게임을 하면서 음성 및 영상 대화까지 가능하다. 현세대는 OTT 서비스, 게임, SNS 같은 취미와 오락 앱을 자주 쓴다. 또한 노는 데에만 스마트폰을 쓰는 건 아니다. 현세대에게 스마트폰은 곧 창작 도구다. 학원 버스 안, 집에서 잠들기 전 등 언제 어디서든 작품을 읽고, 쓰고, 댓글을 단다. 또한 강의를 듣고 공유하며 학습 모습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학습에도 적극 활용한다.

- 2022년 8월 29일 시사IN 이오성 기자 -

어른들은 자녀들 또는 젊은 사람들의 핸드폰 사용 시간이 길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‘스마트 폰 중독’ 문제만 놓고 혀를 끌끌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핸드폰은 과거의 “폰”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. ‘디지털 원주민’인 이들이 이 도구를 잘 활용하게끔 도와주는 사회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?

